

# 증오·배타의 '극우돌풍' 지구촌 흔든다

### 브라질 대선 극우후보 당선·유럽 극우정당 세 급속 확산 트럼프·푸틴·두테르테·시진핑 등 스트롱맨 정치인 득세

지구촌에 예사롭지 않은 '극우돌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관용의 정치'와 다양성을 중시해온 유럽 정치권에서 반(反)이민 정서를 앞세운 극우정당들의 세(勢)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데 이어 남미 최대국가인 브라질의 새 대통령에 극우후보인 사회자유당(PSL)의 자이르 보우소나루(63)가 당선된 것이다.

이 같은 '극우의 약진'은 단순히 정치이념의 차이를 넘어 증오와 배타주의를 앞세운 '포퓰리즘' 정치와 맞물리면서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심상찮은 정치·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그리고 이번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당선인처럼 포퓰리즘 정치를 즐기는 '스트롱맨' (철권통치

자)이나 반인민 정서와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극우정당들이 이 같은 흐름을 주도하면서 '분열의 정치'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하고 있다. 당장 유럽에서는 끝없는 난민 행렬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극우정당들이 두드러진 약진세를 보이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실시된 독일의 중부 헤센주 지방선거에서는 극우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12.1%의 득표율을 기록, 헤센주 의회에 처음으로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9일 실시된 북유럽의 중심국 스웨덴 총선에서는 반난민을 내세운 극우 성향의 정당인 스웨덴민중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사회민주당과 보수당이 이어 확고한 제3당의 위치를 확보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6월 극우정당 '동맹'이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연정을 구성해 정권을 잡

은 데 이어 동맹의 마테오 살비니 대표는 내무장관직을 맡아 강력한 반(反) 난민 정책을 펴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올해 4월 헝가리 총선에선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반난민·반EU를 무기로 내세워 4선에 성공했고, 지난 6월 슬로베니아 총선에서도 반 난민 캠페인을 벌여온 우파 정당 슬로베니아 민주당이 제1당에 올랐다.

앞서 작년 3월 네덜란드 총선에서는 반(反)난민을 내세우는 극우정당인 자유당(PVV)이 제2당으로 올라섰고, 5월 프랑스 대선에서는 국민전선(현재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후보가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결선투표에 처음으로 진출했다.

작년 10월 실시된 오스트리아 총선에서는 극우 자유당이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가 이끄는 우파 국민당과 연정을 구성해 주류 정치무대에 진입했다.

남미의 중주국을 자처하는 브라질 대통령에 보우소나루가 당선된 데에도 바로 이 같은 반 난민 정서와 차별주의를 '활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우소나루는 군부 독재를 미화하고 성·인종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일

삼아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인물이다. 특히 그는 난민을 '쓰레기'에 비유하며 노골적 반난민 정서를 드러낸 바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극우 정치인들이 득세하는 배경에는 집체의 눈에 빠진 경제난 속에서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정서가 깔려 있다는 게 공통적인 분석이다.

이는 미 정계에서 '아웃사이드'나 다름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온갖 막말 논란과 자질 시비를 뒤로 하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배경과도 일치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두테르테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등이 대표적인 스트롱맨들로, 자국 우선주의와 반 무역정서, 세계화에 대한 반감, 반 난민·이민 정책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는 전후 질서에 도전하고 인류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다자주의를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협력을 중시하는 국제사회에 커다란 우려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 〈155〉 노기

노기(盧杞?~758)의 자는 자량이고 하남성 활주 영창 출신이다. 대종, 덕종 때 활약한 중신으로 음모를 잘 꾸미고 성격이 음흉해 사람을 많이 죽였다.

부친 노혁은 755년 안녹산이 난을 일으키자 반군에 회유되지 않고 동도 낙양을 사수하기 위해 저항하다가 처형되었다. 과거를 거치지 않고 음모로 관직생활을 시작했다. 삭방절도사 복고회은의 참모로 일했으며 홍로승, 전중시어사, 선부원외랑을 거쳤다. 충주 자사로 재직할 후 형부원외랑, 금부랑 중, 이부랑 중 직을 수행했다. 이후 하남성의 곡주자사로 재직했다. 모습이 추하지만 말솜씨가 뛰어났다. 덕종은 어사대부로 발탁하고 장안을 관장하는 경기관찰사를 겸직토록 하였다. 성격이 음흉하고 간계에 능했다. 대장군 관

어사대부 엄영을 시기해 황하에 빠져 죽도록 만들었다. 재상 관파를 견제해 사실상 정사를 독점했다. 하루는 관파가 황제와 정사를 논의하던 자리에서 이견을 내려하자 눈짓해 막았다. 후일 관파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마음이 바로고 성실하고 말이 적었기에 재상이 두려움에 떨었다. 노기는 평소엔 입을 열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후 관파는 감히 다른 말을 주장하지 못했다.

번진의 반란으로 당 왕조가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특히 회서절도사 이희열이 783년 낙양을 점령하자 장안이 두려움에 떨었다. 노기는 평소엔 직언을 일삼는 노신 안진경을 중재자로 천거했다. 황제는 그를 선위사로 임명해 낙양에 파견했다. 안진경은 낙양에서 어사대부로 발탁하고 장안을 관장하는 경기관찰사를 겸직토록 하였다. 성격이 음흉하고 간계에 능했다. 대장군 관

### 음흉하고 간계에 능해 수많은 충신 죽여

자이는 그의 천박한 성품을 알아보고 각별히 유의하였다. 하루는 곡자의를 병문안하였다. 곡자의는 대종의 사돈으로 조정 최고의 어른으로 존송받았다. 그가 방문하자 옆에서 시종들은 첩들을 모두 몰러가게 하고 홀로 의자에 기대어 그를 맞이했다. 주변 사람이 연유를 묻자 답하기를 "노기는 모습이 추하고 마음이 음흉하다. 여자들이 그를 보면 반드시 비웃을 것인데 후일 그가 권세를 얻게 되면 우리 집안은 씨도 없을 것이다."

재상 양염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덕종은 그를 문하시랑 겸 동평장사로 삼아 재상으로 기용했다. 사이가 나쁜 양염과 노기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양염은 노기가 추하고 학문이 빈약한 것을 경멸해 더불어 정사를 논의하기를 소홀히 하였다. 노기는 이를 한스럽게 여겼다. 양염이 장안에 집안의 사당을 지으려하자 노기는 그가 역심을 품고 있다고 아래와 같이 참소했다. "이 땅에 제왕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종께서는 소송에게 말해 옮기도록 했는데 양염은 다른 욕망이 있어 그 땅에 사당을 건립하였습니다" 결국 양염은 하남성 애주사마로 좌천되었고 그는 도중 목 졸려 죽었다.

그는 덕종이 시기심이 많은 것을 알고 교묘하게 신하들을 이간질하였다. 창하였다. 황제가 너무 노쇠하지 않은지 하문하자 답하기를 "이규가 가면 지금부터 이규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먼 곳으로 사신으로 가는 것을 감히 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783년 경원병변(涇原兵變)이 일어나 황제는 섬서성 봉천으로 피난갔다. 조정의 푸대접에 경원진의 병사들이 난을 일으킨 것이다. 황제는 재상 최녕에게 크게 의지했다. 최녕은 주변에 "주상께서 총명하시고 선(善)을 쫓기를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하였는데 노기에게 미혹되어 여기에 이르렀소"라고 말하였다. 노기가 최녕을 포함해 "최녕이 장안에서 피난왔는데 형세를 관망하면서 거취를 정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최녕은 목졸려 죽었다. 노기의 전횡이 심해지자 삭방절도사 이희광 등이 자주 표문을 올려 그를 내칠 것을 건의했다. 783년 12월 광동성 신주사마로 좌천되었다. 785년 사면을 받아 강서성 요주자사가 되었다. 이에 원고, 노한 등이 크게 정론하였다. 원고는 주문을 올려 "노기는 지극히 흉악해 백관들이 그를 미워하기를 마치 원수처럼 하고, 군대에서는 그의 살점을 먹고 싶어하는데 어찌 다시 임용할 수 있겠습니까?" 황제는 그를 장안으로 부르지 않고 호남성 풍주 별가로 삼았다. 785년 그곳에서 죽었다.

창하였다. 황제가 너무 노쇠하지 않은지 하문하자 답하기를 "이규가 가면 지금부터 이규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먼 곳으로 사신으로 가는 것을 감히 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783년 경원병변(涇原兵變)이 일어나 황제는 섬서성 봉천으로 피난갔다. 조정의 푸대접에 경원진의 병사들이 난을 일으킨 것이다. 황제는 재상 최녕에게 크게 의지했다. 최녕은 주변에 "주상께서 총명하시고 선(善)을 쫓기를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하였는데 노기에게 미혹되어 여기에 이르렀소"라고 말하였다. 노기가 최녕을 포함해 "최녕이 장안에서 피난왔는데 형세를 관망하면서 거취를 정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최녕은 목졸려 죽었다. 노기의 전횡이 심해지자 삭방절도사 이희광 등이 자주 표문을 올려 그를 내칠 것을 건의했다. 783년 12월 광동성 신주사마로 좌천되었다. 785년 사면을 받아 강서성 요주자사가 되었다. 이에 원고, 노한 등이 크게 정론하였다. 원고는 주문을 올려 "노기는 지극히 흉악해 백관들이 그를 미워하기를 마치 원수처럼 하고, 군대에서는 그의 살점을 먹고 싶어하는데 어찌 다시 임용할 수 있겠습니까?" 황제는 그를 장안으로 부르지 않고 호남성 풍주 별가로 삼았다. 785년 그곳에서 죽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 할러윈데이 행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할러윈데이 행사에서 어린이들에게 할러윈 간식을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 레스터시티 구단주 헬기 추락으로 사망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레스터 시티의 태국인 억만장자 구단주가 탑승한 헬리콥터가 27일(현지시간) 추락했다. 헬기에는 구단주 위치가 시앗다나쁘라 라파(61·사진)와 2명의 조종사 등 모두 5명이 타고 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생존자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과 팬들은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헬기는 이날 밤 레스터시티 경기장에서 이륙한 직후 통제력을 잃고 인근 주차장에 추락했다. 레스터시티와 웨스트햄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후 약 1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추락 후 헬기는 큰 화염에 휩싸였다. 시앗다나쁘라 라파 구단주는 2010년 레스터 시티를 3천900만 파운드(약 570억 원)에 인수한 뒤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2014년에 챔피언십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시켰다. /연합뉴스

### 인도네시아 여객기 해상 추락... 승객 등 180여명 탑승

승객 등 180여명을 태우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수마트라섬 남동쪽 방카 블리투 제도로 향하던 국내선 여객기가 29일(현지시간) 해상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여객기 전해가 발견된 지점에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은 기자회견을 하고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6시 20분

께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을 이륙해 방카섬 팡칼피낭으로 향하던 라이온에어 JT-610편 여객기가 오전 6시 33분께 추락했다고 밝혔다. 추락 지점은 자카르타와 인접한 서자바 주 까라완 리젠시(군·郡) 앞바다로 확인됐다. 국가수색구조청은 해당 항공기에 189명이 타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F)의 수도포 푸르위 누그로호 대변

인은 "성인 승객 178명과 어린이 1명, 유아 2명, 승무원 5명" 등 186명이 탔다고 전했고, 188명이라고 밝힌 기관도 있어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가 확인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국민 피해는 신고되지 않았지만, 관계 당국을 통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 38평, 302호
  - ✓ 사무실 전용, 20층중 3층, 하천방향
  - ✓ 전체 올수리, 대형주차장, 주차2대 무료
  -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가능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6500만원
- (10월 31일까지 이전 조건)

- ✓ 53평, 701호
  - ✓ 사무실/주거겸용, 20층중 7층, 코너
  - ✓ 전체올수리, 대형주차장, 주차3대 무료
  - ✓ 현재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임대중
  - ✓ 시세 - 1억 5000만원
  - ✓ 급매 - 9000만원
- (10월 31일까지 이전 조건)

문의. 010-6834-7400